

SM, 가동률 조정 불구 40달러 급락

FOB Korea 470-480달러 형성 ... Dow의 PS 가동중단이 결정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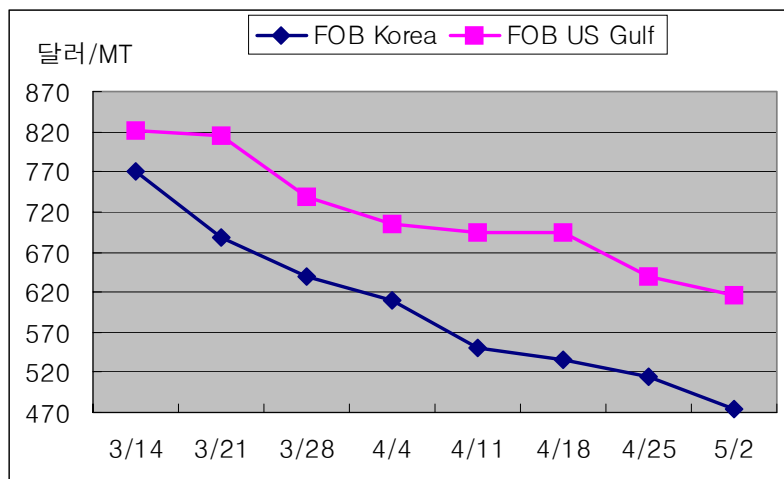
Styrene 가격은 5월2일 FOB Korea 톤당 470-480달러로 40달러 급락했다.

아시아 Styrene 시장은 수익성이 극도로 악화돼 BASF, Idemitsu Petrochemical 등이 가동률을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4월초 60달러 하락 이후 처음으로 40달러 떨어졌다.

4월말에는 Styrene 유도제품 가격하락이 진정되면서 하락세가 둔화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중국의 노동절 연휴 및 미국의 벤젠가격 폭락이 겹치면서 가격폭락 현상이 재연되고 있다.

특히, Dow Chemical이 PS 가격폭락에 대응해 중국 및 홍콩 플랜트의 가동률을 낮출 것이라고 발표한 것이 결정타를 날렸다. 아시아에서는 이미 PS, ABS, EPS, UPR, BR 플랜트 가동률 조정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Styrene 가격추이



이에 따라 6월 거래물량 2000톤이 60일 신용거래 조건으로 CFR China 485달러 또는 at Sight 480달러에 거래됐다. 5월 하순 거래물량 2000톤은 30일 신용거래 조건으로 CFR China 490-500달러를 제시했으나 판매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의 Styrene 가격은 5월2일 FOB US Gulf 파운드당 27.00-28.00센트로 톤당 평균 617달러를 형성하면서 22달러 하락했다.

<Chemical Journal 2003/05/07>